글 _ 강기선 기자

준비된 인재, 여러분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합니다
KAIST 경영대학 졸업 예비생들의 취업 성공기

이번 겨울은 유례없는 한파가 몰아쳤지만 정든 교정과 작별하는 졸업생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구직에 향한 열기로 뜨거웠던 계절이었다. 학생들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 KAIST 경영대학에서 운영 중인 경력개발센터 및 다양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취업한 테크노, 정보미디어, 금융 MBA 학우들을 만나보았다.

인턴십 통해 SK텔레콤 입사

이정재
(테크노 MBA 09학번)

SK텔레콤에 입사할 예정인 이정재 학우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마케팅 분야에 대한 업무 적성이나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기업 문화에 대해 경험해 보고 싶은 마음에 지난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턴십을 이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수한 업무 실력을 인정받아 입사하게 된 케이스이다. 그는 마케팅 관련 수업을 통해 배경지식과 통찰력을 쌓을 수 있었고, 교내 전략 동아리인 BSC와 마케팅 동아리인 MIN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논리력, 발표력을 키워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했으며 과대표를 맡아 학우들을 이끌면서 리더십도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학부시절 컴퓨터 공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한 그는 테크노 MBA 과정을 통해 기본적인 경영학 지식뿐만 아니라 심화된 지식까지 배울 수 있었던 것이 취업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다양한 경험을 가진 동료들과의 토론을 통해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고 한다.

경력개발센터 통해 한국자산평가 입사

이기혁
(금융 MBA 09학번)

한국자산평가에 입사가 예정되어 있는 이기혁 학우는 교내 경력개발센터를 통해 구직에 성공한 케이스로 경력개발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력서 클리닉과 학교 추천을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기업들의 채용 루트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점을 잘 받기 위한 수업을 듣기 보다는 본인이 가진 전문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수업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수강했다. 금융MBA과정을 통해 배운 전문적인 지식 이외에도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학우들과의 끈끈한 인간관계를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과정이 취업과 진로 설정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회사와 업무에 대한 조사를 통한 구직 활동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며, 경력개발센터가 그러한 활동에 도움을 주는 곳이니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채용설명회 통해 다양한 컨설팅 업체로부터 입사 제안

고석태
(정보미디어 MBA 10학번)

여러 전략 컨설팅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고석태 학우는 아직 어떤 회사를 갈지 정하지 못해 행복한 고민 중이다. 고석태 학우는 1년 과정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보미디어 MBA 커리큘럼이 IT, 미디어에 특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미디어산업 분야나 IT를 기반으로 하는 컨버전스 분야로 진출하는데 많은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KT네트웍스 대표이신 한훈 교수님의 강의나, 관련 전문 분야 외부 강사들의 다양한 특강을 통해 전문 지식을 쌓았고 특히 교내 채용 설명회를 통해 관심 회사에 대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면접에 좀 더 수월하게 임한 것이 합격의 비결이라고 밝히면서, 평소 관심이 없던 회사라도 채용설명회에 참석해보면 본인의 적성과 맞는 부분을 찾을 수 있으므로 꼭 채용설명회에 참석해 볼 것을 권장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1년간의 과정을 매우 알차게 보낸 고석태 학우는 Sony 코리아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대한민국 MBA 경영사례분석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KAIST 학우들 모두 도전정신과 목표에 대한 열정을 가질 것을 당부."

취업 성공 키워드는 '도전'과 '열정'

마지막으로 세 학우들에게 후배들에게 전할 말을 부탁했는데 공교롭게 '도전'과 '열정'이라는 공통된 키워드를 전하고 싶어 했다. 고석태 학우는 "KAIST 경영대학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KAIST 학우들 모두 도전정신과 목표에 대한 열정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2011년이 밝았다. 본 기자를 포함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우들에게는 구직을 위한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 본인이 가진 재능과 열정을 진심으로 쏟아 부을 수 있는 회사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과정을 도와줄 KAIST 경영대학의 경력개발센터는 항상 학우들을 위해 열려있다.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는 선배들과의 연결을 주선해 줄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회사의 정보 열람과 진로 상담까지 간단한 사전 예약만 한다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제 졸업을 앞둔 학우들도 앞서 소개한 세 학우처럼 경력개발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좋은 취업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